

68년 호남민과 동거동락...상생정신 빛은 '천년애' 출시

〈천년주 브랜드〉



임지선 대표



‘전라도 정도 1000년’ 맞춰 지자체 협업 통한 ‘천년주’ 개발
1300명 의견 수렴 및 결정...이름·디자인 공모 6000명 출품
모바일 ‘그라제’ 각계 인사 메시지...유시민 작가 마케팅 참여



유시민 Bohae Brewery 사외이사. 지난 3월 '박나래 북돋소'에 출연해 Bohae 천년 기념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ohae Brewery는 지난 1950년 목포시 대안동에 터를 잡은 이후부터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상생해왔다. 광주·전남 대표 주류기업으로써 창립 68주년이자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2018년, Bohae는 특별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Bohae의 태조지인 전라도, 그 전라도란 이름이 정해진 지 천년이 되는 올해, 정도 천년이란 뜻깊은 해를 기념하는 기념주를 소비자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다.

Bohae가 이처럼 시도민들이 참여한 제품을 만들기 결정하는 데 이유가 있다. 전라도가 올해 '정도 천년'이라는 대한민국 어떠한 시·도에서도 얻지 못한 귀중한 타이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라도 시도민들은 '정도 천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청, 전라남도청이 올해를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많은 기념사업을 추진 중인 것도 이러한 이유다.

또한 이번 6·13 지방선거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날이다. 하지만 전라도를 포함한 지역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다. 수도권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몰락 공세를 퍼부으며 지역을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대표기업이자, 유일무이하게 소비재를 만들어 시도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Bohae Brewery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서민 제품인 천년 소주를 기획했다. 더불어, 천년 소주 출시가 단순히 '천년'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수의 활동이 아닌, 시도민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그리고 수익 기부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Bohae Brewery는 지난 2월 전라남도·광주시와 전라도 천년 엠블럼 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Bohae는 정도 천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당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역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또한, 전라도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맛의 소주를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맛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술자리, 회식자리, 길거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을 만나 진행한 맛테스트는, 시도민과 광주시청, 전남도청 공무원 총 1300여명의 의견을 담아냈다. 이를 통해 '전라도 천명이 선택한 편안한 맛'을 결정하게 됐다.

참여 방식은 이 뿐만이 아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천년 기념주를 선보이기 위해 이름·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지난 2월부터 23일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당초 보름 동안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참가문의가 계속되면서 기간을 일주일 연장할 정도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뜨거운 참여 결과, 6000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대상을 수상한 이름은 '천년에(愛)'다. 대상을 수상한 김영복 씨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축하하는 기념주가 전라도 역사와 정신을 담아 모두에게 사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짓게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공모전에 접수된 이름과 디자인 수상작들은 광주시청을 시작으로 광주송정역 등 주요 장소에 순회 전시되어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알리고 축하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맛장구'를 표현하는 '그라제'를 캠페인 타이틀로 해,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한 모바일 사이트 '그라제 주민센터'(https://bohae-graize.com)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정도 천년 축하 메시지, 천년 기념주에 바라는 점 등을 영상으로 담은 '천년터뷰'를 진행 중이다. 현재 김광진 전 국회의원, 이남 작가, 연출가 박강의, 기아타이거즈 장내 아나운서 MC 이수, 그리고 광주·전남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식 배수 김광진 전 의원은 "나는 Bohae Brewery 비공식 영업사원이다.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기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기업은 지역민들이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나운서 MC 이수는 "Bohae와 함께 비를 맞는 야외 클럽파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재미있는 제안과 함께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에게 영상편지를 남겼다. 그 외에도 미래의 여자친구, 사랑하는 가족, 타지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남긴 참여자들의 영상 편지를 볼 수 있다.

정광관 이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Bohae Brewery 유시민 사외이사 역시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에 공감하며 기념주 알리기에 적극적이다. 유시민 이사는 지난 3월 방송된 '박나래 북돋소'에 출연해서 Bohae Brewery 사외이사를 맡게 된 배경과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를 설명했다.

유 이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2018년, 천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소주를 만드는 비밀스러운 미션을 위해 Bohae Brewery 사외이사를 맡게 됐다"며 "Bohae 천년 기념주가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소주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차별 받은 전라도가 정도 천년을 계기로 재조명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기업의 '사외이사'라는 역할을 수락한 유시민 작가는 기업의 미래와 경영에 대해 많은 자문을 전해왔다.

최근 회사 내에서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그리고 시도민들이 참여하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주 개발을 진행하게 되자, 적극적으로 영업·마케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본인에게 누가 될 것이라는 기업 내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사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주는 4월 말 출시 예정이다. 많은 시도민과 지자체, 그리고 유명인사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만큼 제품 이름과 디자인, 맛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인들과 함께 천년을 기념하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시민, 타지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전달되고 있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Bohae Brewery는 이번 정도 천년 기념주 출시와 함께 시민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천년 기념주를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자부심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TOYOTA YOU ARE SO SMART

www.tphoyota.com

CAMRY WILD HYBRID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위해
이것은 하이브리드의 전례 없는 변화

A/S 서비스 만족도 1위 & 판매 서비스 만족도 2위 | 2017 컨슈머인사이트, 수입차 부문

토요타 광주 전시장 : 062-371-8383 (운천역 3번 출구) 토요타 전주 전시장 : 063-273-3222 (덕진동 원광대 한방병원 인근)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CAMRY HYBRID (배기량 2,487cc, 공차중량 1,655kg, e-CVT), 복합연비 : 16.7km/l (도시연비 : 17.1km/l, 고속도로 연비 : 16.2km/l), 복합 CO₂ 배출량 : 95g/km, 등급 :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